

	박찬호 녹취 채록
정우택	선생님을 만나보고 싶었던 것은 지난 번에 질문지를 잠깐 드렸는데요, 그래서 하여튼 저희들이 유행가나 대중가요에 큰 토양이 있고 지식이 많진 않은데요. 이렇게 아리랑을 중심으로 조사를 해 왔습니다. 특히 지역의 음반이나 레코드, 이렇게 되어 있지 않은 지역의 민중들이 부르는 노래를 직접 채록하는...
박찬호	그럼 이 소리는 누구인지 아시지요? (음반 노래)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아리랑 고개로 넘어간다. (들리지 않음). 오까랑또.
정	오까랑또? 아, 이난영.
박	예. 오까랑또. 일본말로.
정	저건 일본에서 나온 음반입니까? 일본 사람들이나...
박	네 그렇습니다.
정	그러면 저희가 돌아갈 때 이 파일을 좀 복사를 해가서 조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	(아리랑 노래 전주 흘러나오고) 기노무라 찌무사? 기노무라 찌무사라고 하는... 아, 선우일선.
정	아, 선우일선.
박	네. (음반 노래)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아리랑 고개로 넘어간다.
정	이건 일본 사람들을 위한 노래입니까? 한국 사람들을 위한...
박	일본 사람들 대상으로 만들어진 노래입니다. 네 그래서 이름도 기노무라 찌무사. 오까랑또라고 하는. 아십니까? 김 안나라고.
정	잘 모르겠습니다.
박	김 정무씨. 누님입니다. 성악가고.
정	아, 그렇습니까. 한국어로 노래를 부르는 가수들이 여기 있는데도 일본 대중들이 충분히 감상을 할 수 있었다는 겁니까?
박	뭐, 이게 일본 말입니다.

정	한 절은 한국어로 하고 한 절은 일본어로 하고 그랬는데,
박	전혀. 모두 일본말입니다. 근데 이것이 김 안나의 노래 이것이 대사가 우리말.
정	그러네요. 재미있습니다. 이런 종류가
정	1930 년.
박	(노래) 일본어 아리랑.
정	이런 음반이 있는 것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인데 작년에 서울에 무슨 이 정철이. 아시지요? 거기에 기부해버렸습니다.
박	이 준희 교수가 있는 거기인가요?
정	와서 가져갔습니다.
박	그렇다고 이 준희 선생을 직접 만났더니, 저는 이번에 알고 있었는데 한 선생은 그전부터 알고 있었다고.
한기형	같이 식민지 공동 연구를 한 적이 있는데요. 그때 제가 기획을 했었는데요. 이 준희 선생이 음반 검열 연구를 해서 같이 책을 엮은 적이 있습니다.
정	그걸 보려고 하면 선생님께서 허락을 해 주시면 거기서 같이 보여줄 수 있다고 이 준희 선생이.
박	거의 없습니다. 다 기증해 버렸습니다.
	이 정도라면 있긴 있는데, 무작정. 사진이 있으니까. 또 어디 있나.
	(노래)
박	이건 다음 음반을. 일본 사람이 갖고 있던 것을 샀어요.
정	아 선생님께서?
박	아, 아닙니다. 이 정철이가.
	아.. 사진이 어디 있나?
	이것이 저, 진도 아리랑.

정	아 진도 아리랑
	(노래 계속 흘러나오며) 아리 아리랑 아라리가 났네. 웁웅웅. 아라리가 났네. 아리아리랑 쓰리쓰리랑 아라리가 났네. 아리랑 고개로...
박	이건 일본 비꾸 사이트(Big site 로 추정)가 만든 AP 음반에 들어 있었습니다. 진도 아리랑하고 가서 직접 녹음해가지고 한 30년 전에 AP로 만들었습니다.
정	지금으로부터 한 30년 전에?
박	네 그렇습니다.
	이것은 진도에 무슨 마을에 직접 가서 했다고 합니다.
정	그래서 일본에서 동포들이나 이런 대상으로 해가지고 판매된 것입니까?
박	아닙니다. 대상들이 일본사람들입니다.
정	네 그렇군요. 일본사람들도 아리랑에 대해서 이해들이 꽤 깊습니까?
박	깊은 건 없습니다. 네 조선민요라고 하는 그 정도입니다. 유명한 노래라고.
정	조선 민요라고 하면 유명한 것들이 아리랑 말고 또 있습니까?
	아리랑밖에 없습니다. 잘 아는 사람이라도 도라지 정도입니다.
	도라지나 아리랑?
	네 그밖에는 모르지요.
	그렇습니까. 그러면 일본 사람들은 아리랑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습니까? 음악? 유희?
	아마, 그 정도지요.
정	선생님께서 혹시 일본 저기가. 예를 들면 질문지에서도 제가 말씀 드렸는데, 편지에 말씀 드린 것처럼, 이 의정 선생님? (이 혜정 선생님)이 박 선생님을 꼭 만나 보라고. 일본의 친구들과 크게 다투셨다고 그러시더라고요.
박	그건 기억이 없는데.
정	일본 사람인 친구가 아리랑이 아주 천하고 상스러운 것이라고 했다고.

박	예예.
정	그렇지 않다고 했는데 딱히 답을 못해가지고 본인도
박	아 예예.
정	그건 아니다, 라고 했는데
박	네 그렇게 이야기 했는데 그 이상 이야기를 못해가지고. 그래가지고 박 찬중 선생이었죠. 옛날에 20-30년 전에 어디 한국에서 공연 나와서, 한국 사람은 한국의 대표사람은 대표 노래로 아리랑을 부르는데 아리랑 소리는 하나도 모르고.
정	음. 옛날 사람들이
박	그러니까 불렀다고
정	그런데 일본 사람들이 아리랑을 이해하고 받아들인 것이 1930년 때부터 받아들일때, 기생의 노래다 게이샤의 노래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했다는 거가 있는데. 혹시 상스럽고 천한, 음란한 노래다, 라고 한다는.
박	네 이야기가 나와서.
정	혹시 그런 이야기를 들어보신 일이 있으신가 하고요. 일본에서요.
박	그건 저, 민요라면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상스러운 가사도 있고, 높은 뜻을 갖고 있는 노래도 있고. 아리랑 백설이라고요. 백이면 다 있습니다.
정	근데 나를 버리고 가시는 님은 십리도 못가서 발병난다는 가사가 그렇도 이해될 수 있는 겁니까?
박	음, 단순한 연애라면, 연애 노래라면 그렇게 볼 수 있죠. 보통.
	그래서 뜻이 있는 사람은 이게 저항 노래다, 라고 이야기 하는 거고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그리고 구슬픈 이별의 노래다, 라고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 입장에서 이해할 수 있죠.
정	선생님께서서는 가요사 책에 제일 앞머리에 아리랑을 넣으시고 중간에도 아리랑을 중요하게

	다루셨는데
박	아, 그건, 그 책의 표제가 달랐습니다. 본래.
정	한국의 가요다?
박	한국의 해석(?)이 아니었습니다. 28년 전이었던가, 그 책을 냈을 때,
정	그때 한 권짜리 냈을 때.
박	한국어가 아니고 일본어입니다.
	네 번역한 것입니다.
	그게 18년 전이었습니다.
정	네 제가 봤습니다.
박	보셨어요?
정	한국에서 번역된 것. 안영민? 안용민 선생이 낸 것.
박	표제가 목포의 눈물이었습니다. 사부제. 황금 인증의 노래와 전환. 그렇게 했는데, 일본 출판사가 말입니다. 목포의 눈물이라고 해도 이것이 무슨 말인지 모른다고. 그리고 작은 글씨로 한글 민중의 노래와 전환이라고 해봐야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그래서 간단하게 하자고 해서. 그래서 할 수 없는 문제라고 생각해서 받아들여서... 그런데 백 년을 통해서 가장 그 당시에 백 년 전에 유행한 노래가 대표적인 것은 아리랑이다. 그런 뜻에서 맨 처음에는 넣고, 그리고 뭐 대원군의 경복궁의 이야기를 섞어 가지고 그걸 썼지요. 예. 그리고 그 다음에 저항가라고 할까요. 독립가 그 외에 여러 공동체에서 불렀다. 그런 뜻에서 가운데에서 아리랑을 넣었어요.
정	선생님 이따가 제가 노래를 이따 듣고 지금 먼저 말씀을 좀 듣겠습니다.
	(흘러 나오던 노래 종료)
정	소위 본조 아리랑이라고 하는 거. 나를 버리고 가시는 임. 영화로 한 것. 선생님께서는, 대중가요하고 가요사하고 많이 들으시고 집중을 하셨는데, 그게 민요라고 볼 수 있을까요 아니면 유행가라고, 혹은 대중가요. 이 어떻게 선생님께서는 보시는지요?

박	뭐, 지금의 시점으로 보면 민요라고 하는 것이 제일 좋지요.
정	음악적으로 실제로는
박	음악적으로는 좀 지식이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저, 뭐라고 할까요. 민요다 대중가요다 유행가다, 모두 음반 회사가 만든 이름이지요. 그래서 저 민요를 부르는 사람은 만든 말이 아니지요. 그리고 민요란 말이 나오는 전에는 이유(이후?)라고 했지요. 세월의 뜻 따라가지고 여러 가지 민원이 있었는지 어땠는지 모르지만 요즘에 와서 한 50년 동안 적어도 50년 동안 민요란 이름으로 전래민요라고 전해왔지요.
정	그랬는데 실제로 26년 영화 주제라고 쓰인 이후로는 이게 전통적인 민요 형식이라기 보다는 그 유행가 내지는 대중가요가 된 것 아니냐. 선생님께서도 책을 쓰시려면 민요에서 유행가로 넘어가고 유행가에서 대중가요로 넘어가는 현상을 고민하셨을 터인데 아리랑이. 지난 번에 이준희 선생은 이걸 민요가 아니냐,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길래 선생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미 민요는 상업적으로 팔렸고 그런 것도 아니고 크게 대중적으로 널리 알리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지역에서 불리는 것인데 이 아리랑은 이미 음반에 실려서 이걸 민요라고 볼 수 없지 않냐 하는 이 준희 선생의 주장이 있길래 혹시 선생님의 대중가, 유행가를 주로 연구를 하셔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박	(한참을 망설이며) 허... 이것이 아리랑 노래다 아야와 노리고, 하세가와 이치로. 하세가와 이치로 아십니까?
정	네 그 책이요?
박	네 그렇습니다. 오카랑또 이 난영. 시마무라 치무라. 선우일선. 모두 음반에는 유행가라고 되어 있습니다.
정	아 그렇습니까. 음반 같은 것들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저희들이 보는 게 필요해서요.
박	네, 잠시만 기다리세요. 유행가이고 조선민요.

	(컴퓨터 화면을 같이 보며)
정	아 같이 써 있습니까?
박	저... 사진이 나옵니다.
정	지난 번에 선생님이 저희한테 보내주셨던 세 장.
박	그때 그렇습니다. 거기에 그렇게 써 있지요? 유행가.
	아리랑 이야기이고
정	아 김안나
박	유행가라고 되어 있지요?
정	그리고 이걸 저희가 좀. 선생님께서 제일 좋아하시는 노래.
박	이게 난영 씨 아십니까? 나화절?
정	잘 모르겠는데요. 일제 말기에?
박	이것도 하하. 이거는 나화절 모르십니까.
정	저희들이 대중가요를 잘 몰라서요.
박	이건 대중가요 아닙니다. 조선인 지원병의 맨 처음에 전사한 사람입니다.
	이거요? 이거 저. 거기서 아니, 6년 전이었던가. 아니, 4년전 (3년전?) 강남의 무슨 소극장 있지 않습니까?
정	아, 네 소극장.
박	이건 뭐 잊어버려서... 한국 문화의 집. 거기서 내가 좀 이야기 했어요. 그때 이걸 좀 직접. 거기서 회장에서 소리를 뭐라고 합니까?
정	관중들한테
박	네, 그리고 저. CD로 만들어서 배포도 했습니다.
정	그러면은 저걸 선생님이 처음 발굴하신 건가요 아니면 그 전에도 사람들이 알고 있었나요?
박	거의 몰랐어요. 그런 것이 있다는 것은 알아도 이런 것을 갖고 있었다는 외국인이 정상은,

	정상인 정신을 갖고 있는 한국 사람은 깨 버려야(?) 돼..
정	그래서...
	선생님 전화가...
박	아 전화가 아닙니다. 3 시다 라는...
정	선생님께서는 한국도 아니고 일본에서 가요를 많이 수집하실 수 있었습니까?
박	전에 아버지가 사왔지요. 음반이 있었습니다. 거의 다 유행가였는데
정	아버님은 언제 여길로 오셨을까요?
박	한때 만주까지 가셨다고 하셨는데. 가신 다음에 되돌아 오고 하신 모양인데. 그때는 전 없으니까 몰라요. 하여튼 해방 후에 이 정도 오신 모양입니다. 그게 점점 즈리자? 길어졌다. 그게 깨지고 해가지고. 마지막엔 이 정도로 되었는데, 그런 기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무슨 말이 나왔는데... 예.... 생일? 잔치마다 일세들이 유행가나 이런 것들을 불렀지요. 아리랑도 그때 나왔지요. 아리랑, 도라지, 노들강변, 유행가 또... 많이 나왔지요. 그래서 그런 기억이 있었는데, 그래서 어렸을 땐 그 음반을 자주 보고, 듣고 했어요. 그랬는데 철이 나가지고 여기서 민족 차별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멀리 했어요 제가. 조선어를 실사 해가지고 일본 사람이 되고 싶다.
정	아 네 선생님도
박	네 그랬습니다. 그랬는데 중, 고등학교에 와서 졸업했을 적엔 완전히 일본사람이 될 수는 없다고 마음을 굳게 가진 것이 아니라 체념했습니다. 나는 그래서 한국 사람이면서도 말도 모르고, 역사도 모르고 내가 뭐냐. 어떻게 살아나가야 할까.
정	그걸 십대때?
박	네, 모두 그랬지요. 대학에 들어가서... 아 저 미안합니다.
	(잠시 녹화 중단. 이어지며...)
정	긴장 되십니까?

박	<p>네... 저 갑자기. 대학에 들어가서 4 학년 때, 저 한국에 가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제가. 그때까지 제가 여러 가지 사정이 있었지만 가기로 되어 있었는데 말도 모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강습소도 없고 했으니 어떻게 할까 했는데 책을 사서 공부 했는데, 책은 음이 안 나옵니다. 그래서 내가 발음해봤자, 무엇을 검증할 기회가 없기 때문에 몇 번이고 잊어버리고 했는데 그때 65 년, 64 년에... 갈 기회가 있었는데 65 년 2 월에서 3 월, 30 일에 걸쳐서 한국에 갔습니다. 마지막 날에 거기 정릉이 아니라, 거기, 중심가 명동에 가서 음반을 두 장 샀습니다. 하나는 저 이미지, 동백아가씨, 또 하나는 불로 간 노래(?). 아 그건 저 아까 조연출씨 노래 거기에 썼습니다. 이미지. 불로 간 노래 10 곡이 들어 있었어요. 10 곡 중 8 곡이 가사가 개사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것이 제가 한국에 옛날 가요에 대해서 흥미를 갖게 된 직접적인 동기가 되었어요. 알아보자고. 무엇 때문에 가사가 바뀌어졌나. 그래서 몇 년 동안 제가 우리 말도 못하지만 신문이나 여러 가지를 보고 했을 때, 가끔 김혜성 씨나 이름 있을 때, 옛날 저 일본에 이런 곳이 있었다 공산주의자에 대해서 이런 게 있었다. 혹시 이 사람들도 불혹한 것이 아니냐, 그렇게 추측했어요. 그래가지고 그렇다면 그 음반에 들어 있는 가사가 나중에는 바뀐 노래였지요. 그렇다면 원래 가사는 어땠나, 그런 것을 알고싶어지고 했는데, 다행히도 일본에 많이 있습니다. 그 가사가. 일본에 특히 저 가수 집안에 오키하고 대표하고 옛날에 음반을 갖고 있었던 그것을 복사해가지고 복학이라고 하면 저길까요? 장사한 사람들이 있었지요. 거기에 옛날 가사가 그대로 들어 있었습니다.</p>
정	30 년대에 나온 음반들이?
박	네 맞습니다.
박	<p>SP 판에서도 그렇고 LP 에는 복학해서 그대로.. 점점 시간에 따라서 한국에서 새로 나온 것도 팔았지만 옛날 그대로 나왔지요. 그것이 참고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말 잘 모르는 사람이 엉켜 쓰기도 했지요. 뜻이 모르는 글이 나옵니다. 그럴 때는 뭐, 어... 작자, 작곡자, 작사가에 이름이 전혀 다르게 한 경우도 있지요. 그래서 그것도 뭐 할 수 없이 예... 서편에서 그걸 저</p>

	<p>내가 틀렸다고 그렇게 썼습니다. 그래서 저 음... 나가네 설움 만든 사람이 고려성씨이고, 고려성씨가 좀 뭐라고 해야 하나, 여러 가지 썼는데, 그렇게 해가지고 옛날 조명함하고 박영호의 이름을 살려가지고 92년에 안동림(?) 선생님이 출판사에서 내주셨지요. 그래서 해방 50년이 지나서 그 사람들의 이름을 내가 다시 섭외한 것이었습니다. 너무 황당할 것 같습니다. 저희는 그랬습니다.</p>
정	<p>그러면 그때부터 쪽 가요를 정리한 이후로 그런 인생을 살아오신 거네요?</p>
박	<p>네.</p>
정	<p>개인적으로?</p>
박	<p>네 개인적으로. 서편을 썼는데, 1945년 8월 15일날 해방 되었다. 그래서 독립만세, 까지는 쓸 수 있었습니다. 그해 아무 것도 본 적이 없고 들은 적도 거의 없고 했으니까, 못 써요. 그리고 자료도 없고. 그때 그간에 유행했던 것은 거의 없고, 자료가 정말 없었습니다. 그래서 단념했지요. 3년 후에는 남북 분단이 되었지요. 분단 되어서 그 2년 후에는 전쟁이 터졌어요. 손 들었다. 아이고, 미안합니다.</p>
정	<p>선생님 힘드신 건 아니시죠?</p>

박

아 괜찮습니다. 그래서 저 안 선생님께 한국에 있는 사람이 쓸 수 있지 않습니까 했더니 못한다고. 왜냐면 여기 있는 사람들은 돈이 안 되는 일은 안 하겠다고. 그래서 그래요? 했더니 하여튼 그때는 사양했습니다. 그랬더니 94년에 다시 만났어요. 만났을 때 똑같은 노래로 같은 말씀을 하시면서, 서평을 쓰라고. 머리가 이상하게 되었는지. 그렇지 않으면 진지하게 그런 말씀을 하시길래 어떻게 이해하면 좋을지 몰랐어요. 그래서 지금은 해외에서 살면서 그것을 갖다가 내가 자라나면서 시대를 갖다가 써야 된다고 그 시대를 살아온 사람이 한국에 많이 있지 않습니까, 몇 백만 명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한테 내가 알려 드리는 거예요? 그런 뜻으로, 샤카니세포, 라는 말이 일본에 있어요. 샤카, 석가님에 선포합니다. 내가 하는 것이 하는 것은 그런 게 아니냐고? 돌리질 못합니다. 제가 그랬는데 돌아와보니 돌아와서 가만히 생각했어요. 안 선생님이 그렇게 하신다면 정말 농담이 아닌 것 같은데. 정말 해볼까, 하는 마음이 되어가지고 조금 갖고 있는 자료하고 여러 가지 모아가지고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해방 후 어느 정도 써가지고 안 선생님께 드렸어요. 그 다음날 월간 오디오 잡지에 연재가 시작되었어요. 인제 말도 못하는 놈이 우리 말로 쓰고 하니까 자신이 없지요. 두려웠어요. 그랬더니 바로 잡힌 글이 많지 않았습니까. 어느 정도 이렇게 써서는 자신있게 되는 것 같다고 해서 갔는데, 역시 큰 벽이 나를 좀 하여튼 저, 살아 본 적이 없지요 한국에서. 그래서 분위기랄까 공기랄까 그런 것도 모르고 그 당시에 노래가 유행한 배경도 모르고. 지금은 느낄 수 있지요. 그때는 못합니다. 어느 가수나 작자가 대표적인 노래는 이거다 해가지고도 그래서 이외에도 소개해야 되는 노래가 있지 않습니까. 있는데, 가수에 따라서는 한국만이라도 괜찮다고 하는 사람도 있고 열 곡 정도는 소개해야 한다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 제가 어떻게 압니까? 그래서 조금씩 써 가면서 몇 년은 못 썼어요. 그런 정도로 되어가지고 하여튼 60년 넘어서 70년대까지 갔습니다. 70년대에 가서 내가 어떻게 70년대를 써부터야 되나. 70년대는 무슨 통기타? 그리고 음악적으로 여러 면이 나왔지요. 유행가. 그래서 그것도 잘 모르고. 신중현, 그건 나중에야 안 이름이고 그 당시엔 잘 몰랐어요. 어떻게 하면 좋을지 몰라서.

통기타라면, "사랑해"로 시작해서 아침이슬이나. 그렇게 써 나가면 재미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앞에 뭔가 있어야 된다. 그 당시에 서양 음악이 많이 들어왔지요. 그런데 그 흐름을 잘 몰라요. 흥미도 없었고. 3년 동안 거의 이 기계 앞에서 매일 못 쓰겠다. 이런 상태로 있었습니다. 어느 날 오전에 집에서 자고 있었더니 전화가 왔습니다 서울에서. 서울대학교 대학원에 이 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내가 쓴 글이, 연재 속에 레인보우 레코드란 말이 나오는데 그건 출전이 됩니까? 그런데 출전은 서울신문에 47년이나 48년에 광고였습니다. 그런데 광고 날짜를 기록을 잊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정확히 못해가지고 48년도에 10월달이었나, 나중엔 전화가 와서 이 신문을 자세히 보았는데 없었습니다. 기록이 없으니까 더 이상 못하겠다. 이 번엔 다시 전화가 와서 부탁이 있다고. 제가 나미스 팬 클럽에 사무국장을 맡고 있는데, 저, 선생님 갖고 계시는 나미스의 SD 음반을 제공해 주세요. 그래서 CDR로 세 장을 만들어서 보냈지요. 보냈는데 나중에 들어보니까 모르는 노래가 10곡 정도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음반은 원래 일본 사람이 갖고 있었어요. 그건 저의 전집에도 썼습니다. 그리고 이걸 저 KBS 라디오 이야기는 들었습니까?

정	KBS 라디오에서 나왔었습니까?
박	7월 30일하고...
	(컴퓨터 화면에서 음악 방송이 흘러나오고...)

	<p>지난 해 11 월 중순 일본 도쿄돔에서 나왔던 일본 아이들의 공연은 3 층 객석을 꽉 채울 정도로 인기가 많았다. 일본은 물론 전 세계 한국을 알리는 한류. 그 단초는 일본의 예상과 달리 훨씬 더 예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70 여년 전. 일본의 민족 말살 정책이 심해지고 있던 그때. 우리나라의 노래를 뜨겁게 불렀던 사람들이 있었다. 그것도 일본 열도 한 가운데서.</p>
박	<p>이건 뭐 조선 악단에 대해서 의미를 갖고 있는 사람이 한 것. 일본 사람이 오사카에 살면서 경성 KBS 가 아니라 NHK 경성 방송국에서 38 년에 신 아리랑 이 난영. 그것을 일본 전국에, 그러니까 조선 반도하고 일본 열도 전국에 생방송으로 중계했답니다. 그때 저 신 아리랑을 듣고 반해버리고 일본 사람이 그리고 저기 저 삼춘이 사시기에 매달 나오는 옥회 신보를 보내 왔다고 부탁해가지고 보내오도록 해가지고 그래서 음반이 200 장 이상 있었지요. 그러니까 소리가 적고 보통이라 할까, 이름만 알지만 내용은 모르는 노래가 많이 있었다. 그랬습니다. 그 가운데서 이 준 씨가 기증 받은 음반 속에 우리가 갖고 있지 않던 노래가 많이 들어 있다고 그래서 기증한 자료로 되고 있다고. 우리가 이용하고 있다. 이렇게 말했지요. 그 사람이 94 년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저 도쿄 가가지고 인수해왔습니다. 70 만엔 줘가지고. 그걸 작년에 이 정철에게 기증했습니다.</p>
정	<p>그러면은 선생님이 가지고 계시던 음반을 이 정철씨에게 다 줘버렸습니까?</p>
박	<p>네. 조금 남아 있긴 있는데 내가 잊어버려서 그때 드렸어야 되는데 잊어버렸어요. 왜냐면 여기서 저, 나고야 방송국에 가서 대줬던 것을 잊어버렸어요. 잊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딴 데 있어가지고 여기에...</p>
정	<p>미처 주지를 못하셨군요.</p>
박	<p>소리 듣고 싶어요? 난영 씨도.</p>
정	<p>네 한 번..</p>
	<p>(노래) 이 물결 지나 저기 저 정거장. 인숙이 텅 빈(?) 하늘도 흔들릴 듯 간 마당이. 정순이(?) 서성이는 일렁이는 고향이 가족 친구가 운에는 직역 가능한 출정이 가슴 가슴 속에는 뜨거운</p>

	눈물 조차 곧이 흐른다. (?) 돌아보기 있다.
박	여기는 저 이 석우씨가 만들었습니다.
정	이게 악기를 하면서 하는 겁니까? 일본 판소리가 아니라.
박	나니아부시
정	일본의 음악 형식인 거죠?
박	네 그렇습니다.
정	백제 칼, 저건 무엇인가요?
박	들어보니까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그런 칼이 있었다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한	이게 몇 년도에? 아, 한꺼번에 여쭙보겠습니다.
박	40 년대에...
정	최초에 조선인 전사자시죠?
박	네 그렇습니다.
정	그럼 이것도 일본에서 만든 것이지요?
박	근데 그 당시 서울에 있었기 때문에 거기서 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도쿄에 몇 군데 학교가 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나라 사람에 대한. 그런데 그 사정은 잘 모르니까, 그건 이 준희 씨가 아십니다.
정	흥미롭고 중요한 자료인 것 같네요.
	이것도 조선인에게 들려주기 위한 것이지요?
박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 조선악단하고 같이 같은 무대에 섰지요.
한	음악의 형식이 다른 형식으로 만들어진 것은 없습니까?

박	형식으로는.... (노래 중단하며) 이걸 그것밖에 없지요. 음... 혹시 전시가요쯤에 우리사람이 부르는 노래 속에 일본 식의 그런 것이 있기는 있어요. 근데 그건 보내왔습니다 누가.
한	상당히 흥미로운 것 같습니다. 한국의 음악 형식을 이용해 군국가요를 만드는 건데요. 경우에 따라서 일본의 형식과 한국의 형식이 섞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일본 형식을 바탕에 깔고 있지만 한국 말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한국의 형식도 섞여 있는 거지요.
정	그럼 작곡을 한 사람은 누구인가요?
박	작곡을 한 사람은 없습니다.
정	일본 사람인가요 한국 사람인가요?
박	작곡이라고 할까요 부르는 유파가 있지요. 유파에 따라서 표현 방식이 정해지고 있지요. 그러니까 그래서 뭐라고 하셨어요? 연출?
정	연출이나 기획이나 부르는 가수가 자기가 생각한 게 아니라 누군가가 이런 형식을 한 번 녹음해보자. 대본을 썼다던가 그런 사람이 있었을 것 같은
한진일	음반 제작자나, 음반 제작한 사람들...
박	음반이라면 역시 사정이 되나, 문예부장한테 맨 처음에 사장이 이 철이었는데 이 철 씨는 37 년이예요? 46 년이었던가, 7 년에 문예부장으로 했고, 지사장이 일본사람이 되어 있었지요. 그런데 그건...
정	저희가 음원을 다운 받을 수 있을까요?
박	어떻게 할까요?
정	아리랑 음원을 혹시 복사를 좀 해주실 수 있나요?
박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아 그렇다면 이걸 빼고....
정	선생님 그러면 여기 가게는 몇 시부터?

박	다섯시부터 합니다
정	저희는 선생님께서 어디선가 늦게 일을 하시고, 그러시는 줄 알고...
	잘 들어간 것 같습니다.
박	그리고 또 사진은 이걸로 되지요?
	곡목에 대해서는 어떻게?
한(2)	노래 제목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건 제가 파일 이름이 일본어로 되어 있으면 다 나타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박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정	(박 선생님이 메모를 하고 있는 것을 보며) 일본에서 활동 했습니까?
박	오까랑또는 활동 했습니다. 이 난영은.
정	엄청난 기억력이 필요하신 거 아닙니까. 헛갈리진 않으시겠어요?
박	김 영환씨 여동생. 김 정님. 이것에 대해서는 그리고 여기 기쁨의 아리랑은 아십니까?
	그건 중국의
	아 그렇습니다.
	저 아리랑 만주는.
박	백 년사. 김 누구였던가. 미국 사람입니다.
정	선생님 그건 책에 확인이 되는 거죠?
박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리랑 처녀는 어떤 CD 집에 들어 있습니다.
정	기쁨의 아리랑은 혹시 해방 되고 40 년에 불리었다는 말이 있던데...
박	아,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정	제가 조사를 하러 중국에도 다녀온 일이 있는데 거기에 갔더니 저것도 누가 불렀는지, 누가 작사 작곡 했는지 모르겠다고 하더라고요.
박	아마 그럴 겁니다.

정	저건 아주 만든 노래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박	그 노래는 아마 "장백산 자자자..."
한(2)	장백산 아리랑 말씀 하시는 것 같은데
박	한 20년 전인가 신나라에서 나왔죠.
정	네, 신나라에서 나왔죠.
한(2)	요즘은 중국에서 아리랑 만드는 것까지 해서 유튜브(youtube)에 다 나와 있습니다.
박	그 정도로 됩니까?
정	선생님께서 어느 정도 보유하고 계신 요 정도.
박	네 그렇습니다. 아까 저 KBS 라디오에서 아리랑 코드랑, 일본 게이샤가 부르는 노래가 나옵니다.
정	그것도 저희가 좀 다운 받을 수 있나요? KBS 방송에서. 저희들이 그거를 가가지고 확인이 잘... 선생님께서 좀 도움을 주신 건가요? KBS 아리랑에.
박	이 호섭? 이 호삼?이 갖고 있었습니다.
한(2)	그래서 그 음원 제공을 선생님께서 해주신 겁니까?
박	아, 아닙니다. 거기 같이 갔어요. 근교에 있습니다 그걸 갖고 있는 사람이. 우리집에서 찾아가서. 그리고 이런 것도 있었습니다. 덕혜옹주, 작사 작곡. 동해를 만들었던 모양입니다. 이것도...
정	일본으로 시집온?
박	네 그렇습니다. 이걸 저 번역했지요. 방송국 PD가 번역했죠. 번역해서 소개 했어요.
한(2)	프로그램 방송 제목이 뭐예요?
정	한일 수교 50주년 특별
한(2)	영상으로 나온 건, 거의 미디어물로 나온 건 유튜브에 거의 다 올라와 있어요.
박	31일날 이걸 서울에서 했는데, 이걸 찾아야 될 것 같아요.
정	저희가 그럼 혹시 자료를 보다가 조금 필요한 게 있으면 유 정철 씨에게 말씀 드려도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박	그건 저도 잘 모릅니다.
정	아 이미 선생님 손을 떠나신 겁니까?
박	웃음
정	나니와 무시와 상생 그것도... 저희가 염치 없이 너무 많이 달라고 그러는 것 아닙니까? 저희들은 이런 걸 상업적으로 사용을 하는 건 아닙니다. 연구하고 그러는 겁니다.
박	아 네네... 이 철희.
	(컴퓨터 화면에서 녹음 자료를 계속 찾으며 시간 지체) 녹음을 한 것이 있는데 여기 있는 게 아니고 다른 곳에 있습니다. 미안합니다. 더 필요한 것이 있습니까?
정	민요나 아리랑, 요 정도입니다.
박	음반은 없으니. 그런데 LP 음반은 있긴 있는데 보시렵니까? 그렇다면 이걸.
	끝